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겁니까.
 어느 가을 ㉠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 ① ㉠은 예상보다 빠르게 닦쳐온 불행을 의미한다.
- ② ㉡은 친동기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은 다른 향가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생생한 표현이다.
- ④ ㉣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10.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 ②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 ③ 정작 일을 서들고 보니 당초의 예상과는 판판으로 돈이 잘 견히지 않았다.
- ④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11. <보기>에서 (가), (나)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어간 받침 ‘ㄴ(ㄴx), ㄹ(ㄹx)’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나)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 | |
|---|----------|-----|
| | (가) | (나) |
| ① | (신을) 신기다 | 여덟도 |
| ② | (나이가) 젊지 | 핥다 |
| ③ | (신을) 신기다 | 핥다 |
| ④ | (나이가) 젊지 | 여덟도 |

12. 밑줄 친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 ② 부동산 경기를 타고 건축 붐이 일어났다.
- ③ 착한 일을 한 덕분에 방송을 타게 됐다.
- ④ 그녀는 아버지의 음악적 소질을 타고 태어났다.

13.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아닌 것은?

- ①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 ② 군인인 형이 휴가를 나왔다.
- ③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④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14.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이 책은 머릿말부터 마음에 들었다.
- ② 복도에서 윗층에 사는 노부부를 만났다.
- ③ 햇님이 방긋 웃는 듯하다.
- ④ 복엇국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다.

15.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너야말로 칭찬받을 만하다.
- ②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 ③ 힘깨나 쓴다고 자랑하지 마라.
- ④ 밥은 커녕 빵도 못 먹었다.

16.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겨레’는 근대국어에서 ‘친족’을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민족’을 뜻하여 의미가 확대되었다.
- ② ‘얼굴’은 중세국어에서 ‘형체’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안면’을 뜻하여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③ ‘어리다’는 중세국어에서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여 의미가 상승하였다.
- ④ ‘계집’은 중세국어에서 ‘여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하락하였다.

17.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부인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 날짜 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발급한다.
- ② 굴삭기에는 굴삭 시건장치를 갖춰야 한다.
→ 굴삭기에는 굴삭 멈춤장치를 갖춰야 한다.
- ③ 소작농에게 농지를 불하하였다.
→ 소작농에게 농지를 매각하였다.
- ④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였다.
→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였다.

18. <보기>의 작품과 형식이 다른 것은?

—<보기>—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여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는다.

- ① 「면앙정가」 ② 「오우가」
- ③ 「훈민가」 ④ 「도산십이곡」

19. <보기>의 ㉠, ㉡에 들어갈 접속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과학 연구와 기술 훈련을 위하여 외국에 갔다 돌아오고, 또 많은 외국의 기술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간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과학 기술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문화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더욱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이것을 발전시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반의 계획과 태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참다운 경제 자립을 이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외교의 자주성을 굳게 지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 선진 기술을 어떠한 원칙에서 받아들여, 어떠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부터 진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은,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 박익수, 「우리 과학 기술 진흥책」 -

- ① ㉠은 조건, 이유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순접’ 기능을 한다.
- ② ㉡은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 ‘요약’ 기능을 한다.
- ③ ㉠은 반대, 대립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역접’ 기능을 한다.
- ④ ㉡은 다른 내용을 도입하는 ‘전환’ 기능을 한다.

20. <보기>에서 (가)~(라)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생물의 동면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상 기온이 있듯이 기온은 변덕이 심해서 생물체가 속는 일이 많다.

(가) 하지만 위험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를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매우 많다.

(나)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날씨의 변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동물들은 계절 변화에 맞추어진 생체 시계나 일광 주기를 동면의 신호로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박쥐의 경우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더라도 대다수는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잠시나마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라)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해서 제철도 아닌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꽃을 피웠다가 날씨가 추워져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다. 이상 기온에 속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겨울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춥지 않아 벌레들이 다시 나왔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

- ① (나) → (다) → (라) → (가)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라) → (가) → (다) → (나) ④ (라) → (가) → (나) → (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